

#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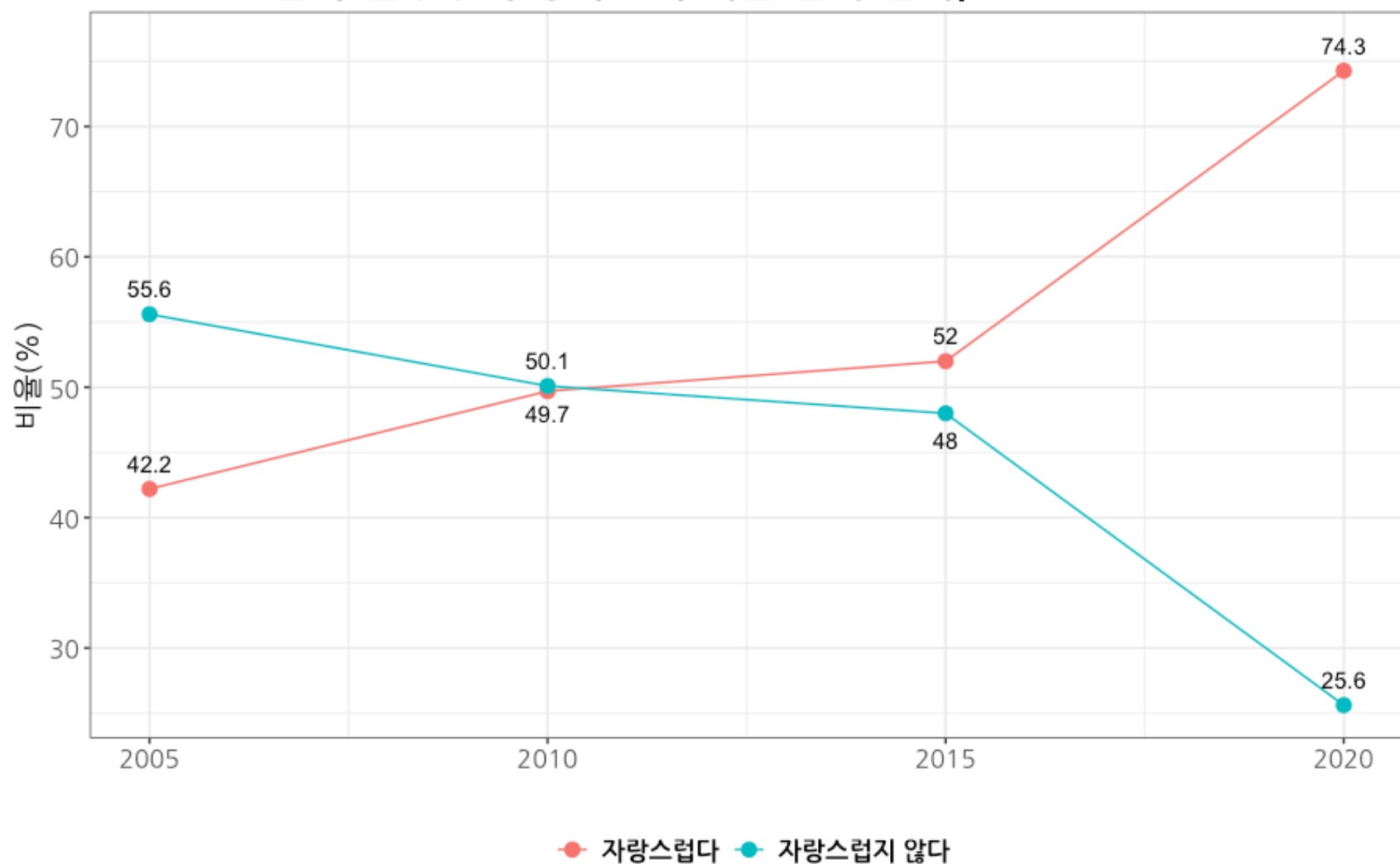
-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 David Easton
  - Specific Support, Democracy-in-practice
    - 현 정부, 지도자, 정책에 대한 지지
  - Diffuse Support, Democracy-in-principle
    -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체제에 대한 지지
-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승자와 패자
  - 정부의 경제적 성과, quality of governance

##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인식 변화, 200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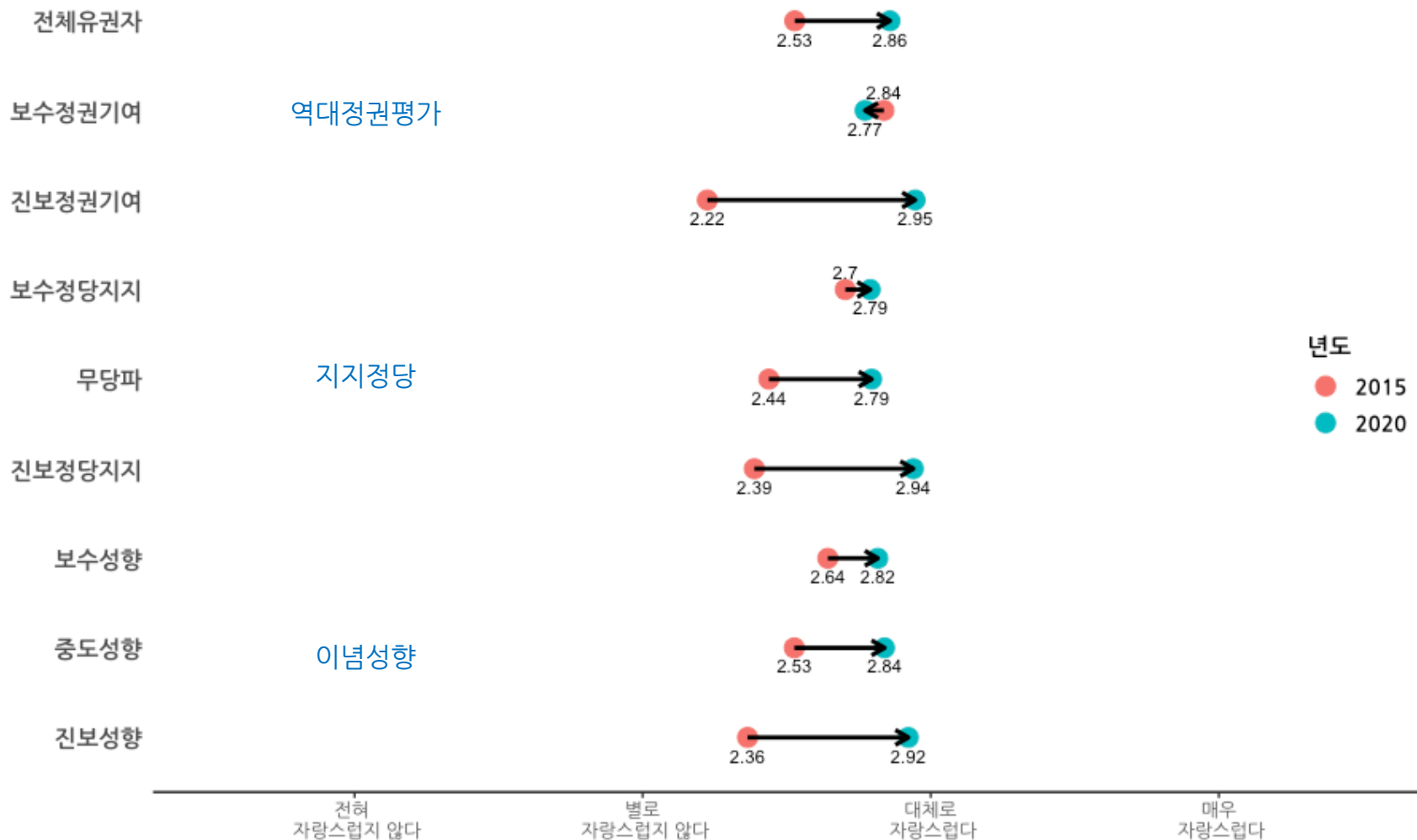


귀하는 다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 2005년 이후 자랑스럽다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 추세
- 2020년 조사에서 74.3%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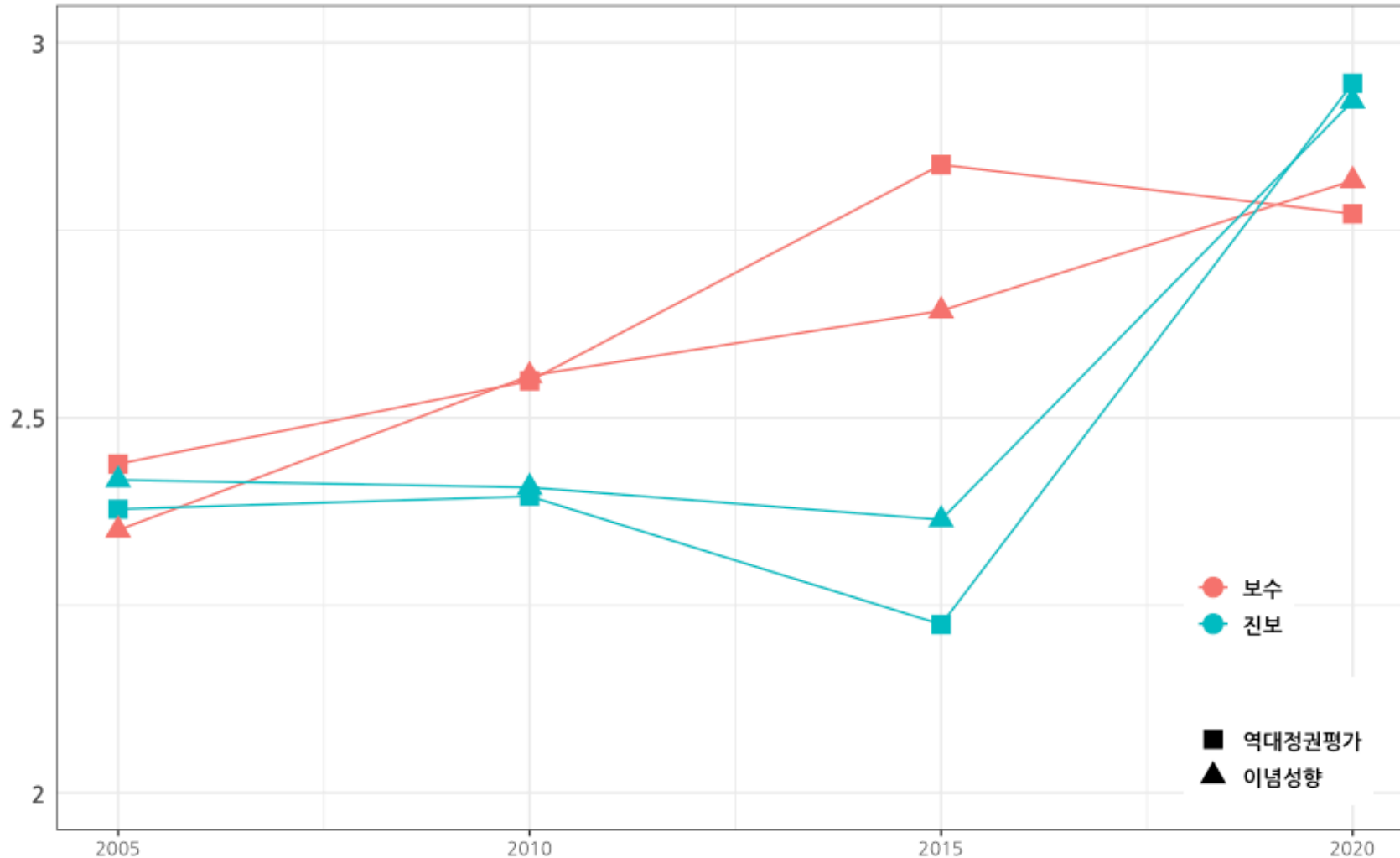
#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변화, 2015 - 2020



역대정권평가: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부들이  
“정치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개인의 이념이나 지지정당보다  
역대정권평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남
- 보수정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의 경우, 후퇴
- 진보정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의 경우 가장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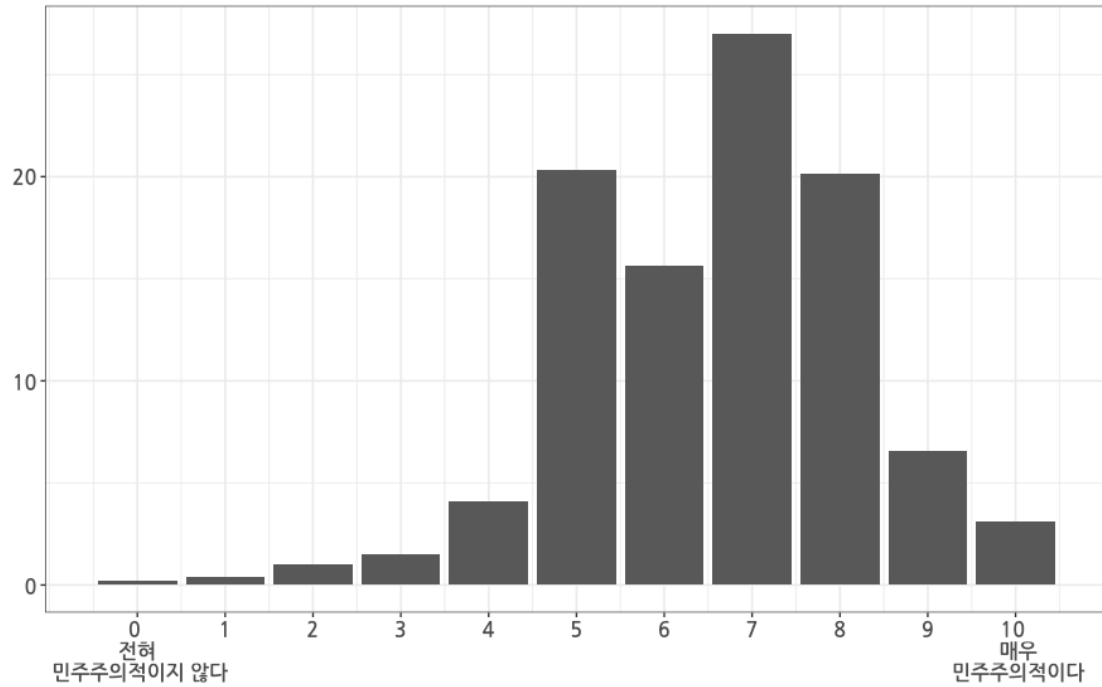
##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변화, 2005 - 2020



- 2005년, 이념성향과 역대정권평가에 따른 성숙도 인식에 큰 차이가 없음
- 2005년 이후 이념성향과 역대정권평가에 따른 성숙도 인식의 차이가 점차 증가
- 2015년 역사인식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특히 보수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이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높게 평가함
- 2005년과 비교할 때, 2020년의 경우 이념성향과 역사인식간의 연관성이 높아짐 (ideological s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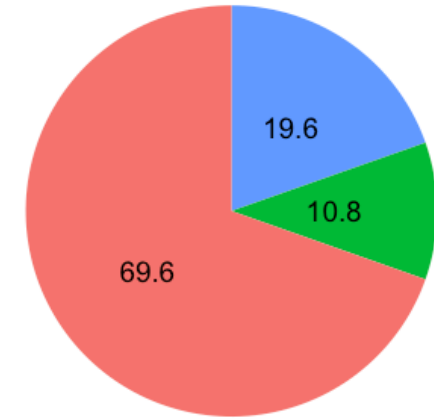
# 새로운 문항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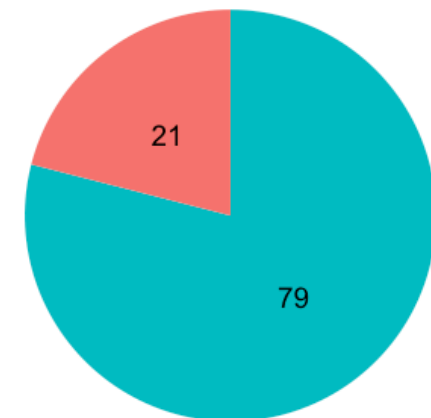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 비교

- 민주주의가 언제나 낫다
- 상관 없다
- 어떤 때는 권위주의가 낫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

-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분석방법

- 종속변수
  - 민주주의에 관한 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 Specific Support: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 Diffuse Support: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비교, 민주주의 문제해결능력
- 독립변수
  - 역대정부인식의 정치발전 기여에 대한 인식 - 진보, 보수
  - 개인이념성향
  - 정당지지 -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시 민주당 투표
  - 시민성 -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
  - 정치갈등에 대한 인식 -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
  - 그 밖의 인구변수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시도)

# 결과 요약

## Specific Support/Democracy-in-practice

- 모형1 - 지역에 따른 차이
  - 서울과 비교할 때, 호남의 지지가 높고, 영남은 낮다.
- 모형2
  - 민주당 지지자,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지높다.
- 모형3
  - 진보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할 수록 지지가 높다.
-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차이

	(1)	(2)	(3)
남성	0.014 (0.063)	0.025 (0.062)	0.038 (0.062)
30대	-0.019 (0.106)	-0.080 (0.106)	-0.088 (0.106)
40대	0.110 (0.102)	0.060 (0.102)	0.044 (0.102)
50대	0.118 (0.103)	0.107 (0.103)	0.083 (0.104)
60대	0.124 (0.111)	0.120 (0.110)	0.115 (0.114)
교육수준	0.017 (0.058)	-0.003 (0.057)	-0.014 (0.058)
소득수준	0.001 (0.025)	-0.003 (0.025)	-0.001 (0.025)
인천/경기	0.052 (0.091)	0.039 (0.089)	0.034 (0.090)
대전/충청	0.195* (0.118)	0.152 (0.116)	0.139 (0.116)
광주/전라	0.538*** (0.122)	0.434*** (0.125)	0.376*** (0.124)
대구/경북	-0.271** (0.121)	-0.094 (0.123)	-0.062 (0.123)
부산/울산/경남	-0.257** (0.108)	-0.245** (0.106)	-0.185* (0.109)
강원/제주	-0.167 (0.171)	-0.184 (0.169)	-0.180 (0.171)
민주당투표		0.160*** (0.037)	0.113*** (0.043)
국가경제인식		0.128*** (0.037)	0.094** (0.038)
진보정권기여			0.195*** (0.034)
보수정권기여			0.051 (0.035)
이념			-0.034 (0.049)
시민성			-0.015 (0.033)
정치갈등			-0.006 (0.031)
Constant	-0.144 (0.193)	-0.496** (0.207)	-0.292 (0.236)
R2	0.055	0.087	0.122
N	999	999	97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 P< 0.05, \*\*\* P< 0.01



# 결과 요약

## Diffuse Support/Democracy-in-principle

- 모형1
  - 60대 이상, 광주/전라 긍정평가
  - 모형2,3에서도 지속
- 모형2
  - 민주당 지지 여부, 경제 평가, 영향력 없음
- 모형3
  - 진보/보수정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태도와 연관
  - 시민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
  - 정치갈등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낮음

	(1)	(2)	(3)
남성	0.005 (0.063)	0.010 (0.064)	0.053 (0.063)
30대	0.132 (0.108)	0.115 (0.109)	0.115 (0.107)
40대	0.062 (0.103)	0.044 (0.105)	0.030 (0.104)
50대	0.137 (0.104)	0.128 (0.106)	0.106 (0.105)
60대	0.226** (0.112)	0.219* (0.113)	0.227** (0.115)
교육수준	0.073 (0.059)	0.067 (0.059)	0.006 (0.059)
소득수준	-0.011 (0.026)	-0.012 (0.026)	0.004 (0.025)
인천/경기	-0.128 (0.092)	-0.132 (0.092)	-0.089 (0.091)
대전/충청	-0.095 (0.119)	-0.105 (0.120)	-0.036 (0.118)
광주/전라	0.332*** (0.124)	0.298** (0.128)	0.241* (0.126)
대구/경북	0.161 (0.122)	0.192 (0.126)	0.271** (0.125)
부산/울산/경남	0.035 (0.109)	0.039 (0.109)	0.136 (0.110)
강원/제주	-0.084 (0.173)	-0.096 (0.174)	-0.093 (0.174)
민주당투표		0.044 (0.038)	-0.018 (0.043)
국가경제인식		0.012 (0.038)	0.020 (0.038)
진보정권기여			0.191*** (0.035)
보수정권기여			-0.068* (0.035)
이념			0.033 (0.049)
시민성			0.130*** (0.033)
정치갈등			-0.063** (0.032)
Constant	-0.257 (0.195)	-0.302 (0.213)	-0.284 (0.240)
R2	0.026	0.027	0.087
N	999	999	97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 P<0.05, \*\*\* P<0.01

# 결론

-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확인
  - 2020년 크게 증가
- Democracy-in-practice
  - 선거결과,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음 → 가변적
- Democracy-in-principle
  - 시민성과 정치양극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음
  - 선거결과나, 경제상황은 영향 없음 → 민주주의 공고화의 증거
- 역사적 정체성
  -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 분석, 2015년의 경우, 진보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록 democracy-in-practice에 대해서는 부정적